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18. 01. 30(화) 10:00 <b>배포즉시</b> 보도 가능합니다.		
상하수도본부	<b>보도자료</b>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이종훈	☎ 750-7800
		상수도생산관리과장	장영진	☎ 750-783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## 서부지역 수질개선 총력...중장기계획 수립검토

- 수질모니터링 강화 및 타당성용역을 통한 수질개선방안 검토 -
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강창석)는 지난해 서부(한림) 지역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지속적으로 질산성질소 문제로 대두되는 상수도 수질문제 개선을 위하여 “서부지역 안정적 상수도 공급”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.
- 한림지역은 10년 전부터 질산성질소가 먹는물 수질기준 10mg/L에 근접한 9mg/L 내외의 수준을 보여 수질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하수도본부는 2008년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 되면서 금악, 서광정수장 공급량(8,000톤/일)을 확대하여 한림지역 일부를 광역 상수도로 대처하였으며, 2012년에는 질산성질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(10,000톤/일, NF막)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.
- 수질검사 결과 한림정수장 원수의 질산성질소는 8~9mg/L로 예전과 변함이 없고, 2016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(10,000톤/일)후 정수는

7~8mg/L이하로 상시 유지되고 있으며, 실제 수용가에는 6mg/L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. 그러나, 주민들은 축산 폐수 무단방류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하여 크게 불신하고 있어,

□ 상하수도본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옹포 수원 등 4개소 원수에 대하여 반기1회 수질검사하던 것을 주1회로 검사를 강화하였고, 주변용천수에 대해서도 질산성질소 등 오염지표성분 7종을 월1회 추가 모니터링 중이며, 또한, 고도정수처리 기능 향상을 위하여 막 모듈 교체비 4억원을 상반기 중 투입 할 예정이다.

○ 이와 병행하여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증설, 대체취수원 개발, 한림정수장 공급량 축소 및 광역정수장 공급확대 방안 등 서부 지역의 수질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“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증설 타당성용역” 을 1월에 발주하였다.

□ 본 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,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체취수원 개발 및 고도정수처리 증설 등 수자원체계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협의를 통한 재원확보,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, 사업추진 등 2021년까지 서부지역 상수도 수질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.